

어려운 단어? 인터넷에 물어봐

조계종 '인터넷불교용어사전' 제작 ... 2008년 한·중·영 사전 오픈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인터넷 불교용어사전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 불교용어사전 제작 사업을 시작해 올 12월 초까지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만불광산사 발행 중영사전, 종단영문표기법, 운허 스님 불교사전 등을 참고해 약 5만 단어를 수집한다. 2007년까지 기초 데이터 추가 수집을 비롯해 국내 불

교신문 및 학술서를 중심으로 사전화되지 않은 단어를 추출한다. 2008년 상반기에는 중국어가 병기된 한글 및 영문 불교사전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언어별 독자적인 사전이 구축될 뿐 아니라 한글-영어, 한글-스페인어, 영어-스페인어 등 1차 선택 언어와 2차 선택 언어간 비교 참조가 가능해진다. 또한 구글의 위키(wiki) 서비스 연결

을 통해 단어의 사전적 정의 외에 백과사전적 정의까지 연결된다. 포교원이 인터넷 불교용어사전을 개발한 이유는 현재 종단 내 합의된 영문 및 다국어 번역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기준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종단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정리되고 검색이 쉬우며 언어별 참

조기능이 있는 인터넷 불교사전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포교원은 인터넷 불교사전을 무료 개방해 해외포교 활성화와 종단 위상 제고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근 포교원 국제사이트팀장은 "사업 추진 주제 및 예산 확보 등이 확정돼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종단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남동우 기자

“중생을 가족으로 여기며 화합세상을 ...”

진각종 제10대 도훈 총인 추대법회... '心印진리' 실천 다짐



진각종의 최고 지도자인 제10대 총인에 도훈 정사가 취임했다. 진각종은 11월 23일 서울 총인원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인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총인으로 추대된 도훈 정사(가운데)가 호위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서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종 제 10대 총인 도훈 정사가 공식 취임했다. 진각종(총리원장 회정)은 11월 23일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제 10대 총인 도훈 정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회정 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추대법회는 진각의 새 역사를 앞둔 법연의 줄기로, 한국 밀교의 법맥을 이어가는 장엄한 법통 승수의 자리"라며 "지중한 인연이 갖는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총인 추대법회를 계기로 진언행자들이 더 큰 서원과 정진으로 진각종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인에 추대된 도훈 정사는 법어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심인진리(心印眞理)의 법통을 승수하고 실천해 이 지상에 밀엄정토(密嚴淨土)를 건설하기 위해 서원하는 불사의 자리"라며 "심인진리는 법신불의 당체법통을 심인으로써 전수승한 진각성존의 육자진언 묘리에

서 우러난 자내증(自內證)의 법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대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흥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윤원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겸 이타회 회장,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진각종 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21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훈 총인은 "먼저 가정이 화순(和順)해야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인류평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훈 총인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입수륙 전미개요(轉迷開悟)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여 이타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면서 "진각종이 사회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모실 걱정 태산같아요”

호스피스 활동 지현 스님, 高大 안산·안암·구로 병원 법당 3곳 개원 앞두고 '막~막'

삶과 죽음이 숨가쁘게 교차하는 병원은 그 어느 곳보다도 부처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병원은 많지만 정작 병원 내에 법당이 마련된 경우는 흔치 않다.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병원법당을 연달아 3개년 개원하기 위해 바쁜 스님이 있다. 11번째 고대의료원에서 호스피스 활동 중인 지현 스님(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부회장·사진). 스님은 12월 4일 고대안산병원 법당개원을 시작으로, 12월 중 고대안암병원, 내년 1월 고대구로병원에 차례로 법당을 개원할 예정이다. 스님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11월 22일 고대안암병원에서 만난 지현 스님은 그저법 병원불사가 가능했던 이유를 말없이 보여줬다. "스님, 마음공부가 마음처럼 안 돼요. 환자들이 땀겨리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오요." 스님은 병원 직원의 하소연을 듣는 중이었다. 직원과 상담 나누기를 10분 여. 직원은 연신 땀을 다독거리곤 스님에게 합장 반배를 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스님이 법당 개원 원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병원 내 의료진, 환자, 봉사자들과 마음을 합친 덕택이다. 스님은 11년 전 불자회조차 없는 병원에서 차근차근 밀그림을 그려왔다. 낱말이 흩어진 불자를 수소문했고, 2005년 불자회 창립을 서원하던 안암병원 신생아실 김명화 수간호사와 구로병원 김우주 감염내과의를 만나 2005년 7월 7일 고대의료원 불자회도 결성했다. 그런데 법당건립을 요구하는 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대의료원과 중대병원을 뛰어다니며 환자를 돌보고 의료진을 위로하는 지현 스님은 아예 호주머니 안에 병원의료진 근무표를 넣고 다닌다. 고 있던 중대병원 불자회와의 연계 활동으로 도움을 받았다. 요즘은 월·목요일 중대병원, 수요일 구로병원, 금요일 안암병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자회 측은 병원은 건립불가 통보를 내렸다. "활동이 없애 공간을 내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스님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곧바로 성지순례를 비롯해 해외근로자 봉사활동, 풍광의료봉사 등을 전개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운 부들은 지현 스님이 연을 맺고 있던 중대병원 불자회와의 연계 활동으로 도움을 받았다. 요즘은 월·목요일 중대병원, 수요일 구로병원, 금요일 안암병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이날 법회에서 회정 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추대법회는 진각의 새 역사를 앞둔 법연의 줄기로, 한국 밀교의 법맥을 이어가는 장엄한 법통 승수의 자리"라며 "지중한 인연이 갖는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총인 추대법회를 계기로 진언행자들이 더 큰 서원과 정진으로 진각종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인에 추대된 도훈 정사는 법어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심인진리(心印眞理)의 법통을 승수하고 실천해 이 지상에 밀엄정토(密嚴淨土)를 건설하기 위해 서원하는 불사의 자리"라며 "심인진리는 법신불의 당체법통을 심인으로써 전수승한 진각성존의 육자진언 묘리에

도반의 향기
공문수 3대째 手묵탁 제작 17면
조계종 내년 예산 얼마? 2면
현장교사들이 말하는 어린이법회 오늘과 내일 19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통광 스님 '원각경' 24~25면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범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두: 북장악, 상량사, 영가천도, 불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진품차사호 착수입
02-744-3311
www.hongdawn.com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걸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달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kipo0255@yahoo.co.kr / db4676@chol.com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템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유클러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주 11월 30일 - 12월 6일 [17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1월30일[목]	우리절	-	경기광주시 18km
12월 1일[금]	광주시	-	조안면 26km
12월 2일[토]	조안면	-	대성리 19km
12월 3일[일]	대성리	-	가 평 23km
12월 4일[월]	가 평	-	의암역 19km
12월 5일[화]	의암역	-	소양호선착장 17km
12월 6일[수]	소양호	-	양구 광지 74km

제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1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백담사 12km
12월10일[일]	백담사	-	봉정암 12km
12월 11일[월]	봉정암	- 백담사 -	용대리 24km
12월12일[화]	용대리	-	소동령 17km
12월13일[수]	소동령	-	건봉사 18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씩씩 연속해서 회향 일장까지 게재해 드립니다.